

전북도, 소상공인 1조 4500억 금융지원 가동

전북신보 주축 보증 지원 추진
마이너스통장형 '희망채움' 신설
유동성 위기·고금리 부담 완화 집중
회생·저신용·육아인정 특례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전북신보증재단이 주축이 돼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의 단기 유동성 위기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일시대출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보완해, 필요 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소상공인 희망채움 통장'을 새롭게 운영한다. 희망채움 통장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소액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수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난으로 인한 연체와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상공인 보증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핵심 보증사업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회생 보증자금 금융지원



전북도, 대설·한파 대비 현장 점검 강화 7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진안군 일원을 방문해 도로 제설전진기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마령면 한파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전북자치도>

특례보증'은 지난해 3,750억 원에서 올 해 4,170억 원으로 늘려, 경영애로기업과 첫 거래 기업,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하고 2~4% 수준의 이자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15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2% 이차

보전이 연계된다.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소상공인이나 임신·난임 치료 중인 소상공인, 결혼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 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은 75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하고 2%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대환대출, 브릿지보증 등 기타 특례보증 사업을 포함한 총 17개 보증 상품에 이자보전 사업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와 재단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1588-383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정철 기자

道, 야생 설치류 병원체 확인...인수공통감염병 선제 대응 강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중심
지역 감염예방선제 대응 체계 운영
원헬스 기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전북도는 최근 전라북도 지역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단위 감염병 감시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

체에서 확인되는 병원체를 조기에 분석하고 위험도를 평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과 즉시 공유해 추가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방역 조치 등 후속 대응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연구소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

이전 단계에서 예방 중심의 전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감염병 연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연구소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야생동물에서 확인된 병원체에 대한 정밀 분석과 전임상 연구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을 기반으로, 수의학·의학·환경 분야가

연계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야생동물 병원체 확인 사례는 지역 차원의 감염병 감시와 선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도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못했고, 알았다면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무장 선임전의 선거법위반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문제이 있

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캠프에서 활동한 신 의원의 보좌관인 김 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면에서 계속>



7년 만에 녀석들이 돌아왔다?!

기판 5분展
SEASON II

2026 겨울방학 특별기획전!

내가
누구~~~
게?

2025. 12. 25(목) ~ 2026. 2. 22(일)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

매주 월요일 휴관

* 2월 16일(월) 정상운영

2월 17일(설날) 및 2월 19일(목) 휴관

주최 · 주관 : 남원시 문의 전화 : 063-620-5752~4

道 대외국제소통국, 연대·협력으로 도정 현안 성과

정치권·민간·출향도민 연대 강화

정부부처와 적극 소통 대광법 개정
피지컬 AI 유치 등 핵심 과제 견인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가교 역할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국장 백경태)은 지난해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도정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 구축에 진력했다.

도정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민간단체, 출향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히 협력했고, 출향도민, 고향사랑기부와의 연계를 강화한 전북사랑도민증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전북형 비자 정책과 외국인 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 유치부터 정주·생활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특히 국회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전방위

적 소통과 수도권에서의 다양한 인적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북도의 지지세력을 결집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상시소통을 통해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과 피지컬 AI 실증사업 유치에 큰 역할을 했으며, 제2중양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및 전북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출향도민을 결집시켜 자발적인 도정참여를 이어가도록 했다.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에도 전북이 최대규모(10조83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사상 첫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데도 가교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에 대해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여가기 위해서는 도정 동반자로서 다양한 채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한 전북사랑도민증 업무를 출향도민과 고향사랑기부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외협력과로 이관하고 활성화 정책도 발표했다.



출향도민 용산역 도민증 홍보 협력 활동

<사진=전북도>

먼저 출향도민, 관광객 등 타깃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2024년 4천5백여명이었던 가입자는 2025년 7만여명으로 양적 성과를 거뒀다.

지상파TV, SNS, 전광판, 출향단체 각종 행사, 도내외 주요 행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입체적 홍보 전략으로 제도를 알리고 가입 참여를 유도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농특산물 판매 플랫폼 생생장터, 투어패스, 전북농촌여행 참관 등 도내 주요 서비스 플랫폼을 연계해 '전북사랑도민'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했다.

/장정철 기자

아울러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가맹점을 대폭 확대했다.

2024년 43개소에 불과했던 가맹점을 2025년 441개소까지 확대했는데 경기전, 이성당 등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발굴했다.

전국적 출향도민 네트워크인 전북도민회중앙회를 통해 도정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하계올림픽 유치,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도정현안에 적극 협력하는 등 대외국제소통국은 지난해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용인 반도체 전북 이전, 국가 성장 중심 도약 분기점”

안 의원 “지금 전북이나서야” 호소 수도권 중심 전략 정면 문제 제기 “전북이전 지방 주도 성장의 시험대”



과 언론이 전북 이전 주장에 대해 각종 논리를 동원해 사실상 용단폭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대통령께서 '자원의 집중과 기 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고 분명히 밝혀셨다"

며 "국가 성장 평화다임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 기조와 용인 반도체의 지

방 이전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강조

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의 지방 이전은 이제 전북만의 요구가 아니다"라며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이병훈 국회의원이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증설 패은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전북이 제기해 온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과 '에너지 기반 산업 재배치' 주장이 결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타당한 대안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

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북 발전의 상징인 용

인 반도체 전북 이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전북은 자칫 새로운 국가 발전 구도에서 미ي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목소리"라며 "수도권의 거센 반대를 끊고 전북의 요구가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저 안호영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뜰뜰 뭉쳐 용인 반도체 산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순창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1개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해, 1월 6일 기준 전체 군민의 35%가 넘는 9,760명이 신청을 마쳤다. 장수군도 1월 7일부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 대상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90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두 군은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장수·순창서 ‘순항’

순창신청률 35% 돌파 장수접수 본격 1인당 월 1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부정수급 차단·지역경제 연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사업이 장수군과 순창군에

고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군민으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서류 검토와 실거주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이 확정되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첫 지급은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사용 기한이 90일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두 군은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접수 창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1면에서 이어서>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 경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충북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자 전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을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각하였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여론조사 왜

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99개가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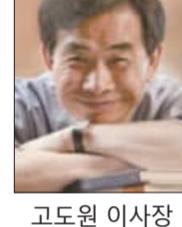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내용으로 제2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기 본체와 전자정보를 같이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신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보궐선거는 오는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연구원 2026 첫 백년포럼…‘아침편지’ 고도원 강연



수 있는 심리적 안정과 내면의 공간에 대해 설명하며, 글쓰기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하고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도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20여 년간 이어온 ‘고도원 아침편지’ 사례를 언급하며, “한 통의 글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소통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메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쓰기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적 이해와 연대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가 다양한 창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고 이사장은 “AI는 단순한 기록이나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쳐 지나가는 일상과 감정을 글로 불자는 순간, 평범한 삶은 성찰의 대상이 된다”며 글쓰기가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강연에서는 독서와 글쓰기의 관계도 함께 다뤄졌다. 고 이사장은 “단단한 독서가 단단한 글을 만든다”며, 깊이 있는 독서 경험에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2·2·5 독서법’, 발췌와 요약을 통한 읽기·쓰기 방법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독서·글쓰기 방법을 소개했다.

행사를 마련한 전북연구원 최백렬 원장은 “2026년 첫 백년포럼은 글쓰기와 인문학 성장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병행된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실거주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장전입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제재부과금 부과, 강제징수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 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형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소비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며,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기본사회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겨울철 안전한 운전을 위한 준비과정?

자동차 예열

- 차량 탑승하여 시동 켜고 20~30초 예열하기
- 엔진온도 올라가기 전 급제동 급가속 하지 않기

성에(습기) 제

- 차량 REAR, FRONT 버튼 활용
- A/C 버튼으로 히터작동 시 과도한 습기 예방

타이어 관리

- 겨울철 타이어 공기압 적정 수치
승용차 - 30~33psi
RV - 35~40psi

운전습관

- 급정거를 피하고 브레이크는 부드럽게 사용
- 빙판길, 내리막길은 엔진 브레이크 사용

전주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연내 개통

호남제일문~한벽교교차로
BRT 1단계 11월 개통 예정

전주시 대중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BRT가 연내 개통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RT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BRT는 주요 도로망과 교차로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교통체계 혁신 사업이라 점에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총 3단계 28.5km 구간 BRT 중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1단계 기린대로 BRT가 오는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단계인 기린대로 BRT는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교차로까지 9.5km



운동장네거리 조감도

구간에 구축된다.

이어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교 △

구간은 2026년 11월 개통 예정이다.

추천대교~기린로전자상가 △기린로전자상가~오목대의 3개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한다.

전주시는 BRT가 도입되면 고령자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게 된다. 특히 BRT 도입과 대중교통 전환은 탄소증립과 녹색성장 효과가 기대되는 환경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BRT 추진 대상 지역의 범위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으로 확대되면서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 추진 시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반려동물 우발적 화재주의 당부

외출 중 화재 발생 큰 피해 이어져

전주완산소방서 박덕규 서장은 반려동물의 우발적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총 375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는 약 14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화재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소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7일 2026년 첫 일정 전주시 방문

'전주 대도약 비전' 공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6년도를 맞아 도내 14개 시군 중 처음으로 전주시를 찾아 전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전주시는 7일 김관영 지사는 "도전경성(挑戰競成)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전북도정과 전주시정 공유"를 위해 전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서 김 지사는 전주시의 회를 찾아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나누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시청 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26년 '여민유지(與民由之)' 사자성어를 소개하며 초심을 도민과 함께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전북에서의 전주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주의 대도약을 위해 밝혔다.

아낌없는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후 사회복지 시설인 서원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을 청취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전주 서부시장을 찾아 전주시 자생단체장들과 장보기 행사를 가진 후 만찬을 끝으로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영태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로 전주시가 발전해야 전북이 더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주시민을 위해 대도약의 길을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려동물의 우발적 행동에 의한 화재 발생은 외출 중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외출 시 전기레인지·하이라이트 등 전기기기 전원 차단 △조리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전원 버튼 잠금 기능 활용 △반려동물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 조성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중앙성당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950년대 전주 대표 건축물

우리나라 대표 역사관광도시 전주시에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전주 중앙성당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주시는 국가유산청이 1956년 완공된 후 현재까지 전주교 전주교구 주교좌본당으로 사용 중인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둘 주 진될 종합정비계획은 학술연구 및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진정성 및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된다.

시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주 중앙성당은 1950년대



전주교인이 늘어나면서 새 성전 설립의 요구에 맞춰 1956년에 완공됐다. 다음 해

인 1957년부터 전주 전동성당을 대신해 전주교구 주교좌본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

당으로 의미가 있으며, 전라북도건축사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 일뿐 아니라 다른 성당과도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성당의 종탑 상부 조적 기법과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 물갈기 마감은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필수 보존 요소로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필수보존 요소는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전주 중앙성당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전주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전주에는 지난 2005년 신흥고등학교 강당 및 본관 포치를 시작으로 중앙동 구 박다옥, 다가동 구 중국인 포목상점, 전북대학교 본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에 이어 7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남성연합회장 완주 민국열 대장

여성연합회장 정읍 김성순 대장

바 있다.

또 김성순 여성회장은 지난 2004년 입대 이후 20여 년 동안 화재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현장 최前线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으며 독거노인 돌봄과 취약계층 반찬나눔 등 이웃을 위한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1월 '정읍시민의 정' 중 '애향봉사장'을 수상했다.

민국열 김성순 연합회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용소방대가 하나로 힘을 모아 도민이 제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민국열 김성순 연합회장은 지난 2016년 입대해 2023년 의용소방대장, 2024년 완주 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대응과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업을 뒤로한 채 복구활동에 전념하는 등 지역안전에 크게 기여한

/장정철 기자

전주시의회,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 발전 협력 강화

지역 농촌 현안 공유·협력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직자 지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농업·농촌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의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직자 김세영 지사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농업기반시설 관리, 기후변화 대응 농업 인프라 개선, 지역 현안 사업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세영 지사장은 간담회에서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관우 의장은 "농업과 농촌은 전주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농어촌공사와 지역 농업 발전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협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소민 기자

의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아울러 덕진구 통장협의회 회장단은 지역 여건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

한 의견을 제시했다. 덕진구는 이자리에서 겨울철 재난에 대한 통장협의회 회장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는 1월초부터 2월 중순까지 관내 일반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주유소는 대표적 고위험 시설이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기 사용이나 주유 중 엔진 미정지, 흡연 행위 등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관내 일반주유취급소 중 10개소를 선정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안전관리점검 내용은 △위험물 시설의 구조·설비 기준 적합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또는 변경허

/정소민 기자

2026년 전주시 덕진구 통장연합회 간담회 진행

'소통하는구정', '함께 만드는 덕진구'

전주시 '2026년 신년맞이' 덕진구 통장연합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6일 열린 간담회는 구정 운영 방

향 공유와 동별 주요 현안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덕진구 통장협의회와의 협력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각 동별 생활 현안 또는 주민 건

의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아울러 덕진구 통장협의회 회장단은 지역 여건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

한 의견을 제시했다. 덕진구는 이자리에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LG엔솔, ESS 안전 생태계 조성 '맞손'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술 교류·협력 등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7일 LG에너지솔루션(대표 김동명)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안전관리 정책 지

원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ESS용 LFP(리튬이온철) 배터리가 적용되는 신규 사이트를 대상으로 운영 및 점검·검사 기준 등을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사 남화영 사장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가진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LG에너지솔루션과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에서 '에너지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적인 기술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ESS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공로 인정

농심천심 가치실현감사패전달

해 열린 '2025 우리쌀·우리쌀 K-라이스페스타'에 출품한 '도한 청명주'가 약·청주 부문 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은 7일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소장 한영석)에 경제사업 활성화 유공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성과는 전북쌀의 우수성과 지역 농산물 가공 기술력을 전국에 알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농협은 K-라이스페스타에서 지역본부 경진대회 2위를 차지하며, 전북농협과 지역농협, 쌀가공업체가 함께 만들어온 협력의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앞으로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 전북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심천심(農心天心)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노력은 지난

/김영태 기자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생태계혁신형 프로젝트 팀 4년간 최대 2백억 원 지원

중기부는 공급기업, 수요기업 등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해 생태계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한다.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R&D 과제가 개별 기술 단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기업이 협력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 실증함으로써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고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이다.

중기부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AI·디지털 △첨단로봇·제조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의 5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증을 거쳐 국내 산업생태계 혁신과 글로벌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1단계) 약 3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를 8개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팀은 최대 6개월간 기술·시장 검증(PoC, PoM), 3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금 유치, 프로젝트 팀 보완 등 사전준비과정을 거친다.

(2단계) 사전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 팀 중 사업성과 기술개발 타당성, 혁신성 등이 검증된 5개 과제를 선정해 4년간 최대 200억원 본격적인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R&D 투입규모가 큰 만큼 기술·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록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전문가(PM)가 과제 발굴단계부터 참여해 기술·시장 검증, 프로젝트 팀 구성뿐만 아니라 R&D 수행과 정 중 목표 변경과 중단까지 지원하는 '무빙타겟' 등 기존 R&D와는 구분되는 특화 지원체계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공고 기간은 2026년 1월 8일부터 2026년 4월 7일까지다.

법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설명회도 2026년 2월 3일, 예산 텁스터운 S1 및 온라인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과수 한파 피해 예방 “전용 수성페인트 나왔다”

농촌진흥청·케이씨씨 공동 연구 통해 예방 기대

최근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지며 과일나무의 활동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수의 한파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이하의 한파가 닥쳐 전국 727헥타르(ha) 과수원에서 언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페인트 생산 전문 기업 케이씨씨(KCC)와 지난해 공동 연구를 통해 과일나무 언 피해(동

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나무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발라두면 낮에는 햇빛 반사로 나무껍질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밤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겹질 균열(티짐)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한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 제품은 햇빛을 반사·차단해 표면 온도 상승을 막는 차별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나무 균열 발생을 막는 능력과 방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실험 재배지에서 아무 처리하지 않은 나무와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를 칠한 나무, 둘로 나눠 실험을 진행

했다. 그 결과, 아무 처리하지 않은 나무는 낮 동안 대기 온도(0도) 대비 최대 13.1도(℃)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일반 페인트 신장률은 5% 미만이지만,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는 120% 수준으로 24배 더 높아 나무의 팽창·수축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반 페인트는 3분 내 수분이 침투했지만,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는 40분 이상 수분을 차단했다.

방수성이 높으면 수분 유입을 차단, 세포막 파손을 방지함으로써 언 피해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과 케이씨씨(KCC)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 페인트 제조 기술을 공

동 특허출원하고 이달 신제품을 출시한다. 올해 신기술보급사업(10㏊)도 추진, 보급을 확대한다. 겨울철 언 피해 예방뿐 아니라 여름철 햇빛에 의해 나무가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저감 효과를 실증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 기초기반과 윤수현 과장은 "이번 기술은 단순 제품 개발을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배 위험을 줄이는 실용적 기술이다"며 "사과·복숭아 등 주요 과수 재배지에서 실증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급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전북의 비경 사진전’ 개최

우리문화사진연구회 주관 30일까지 전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잠시나마 위안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병원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전북의 자연경관과 도시의 풍경,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전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작품으로는 △옥구향교(김미선) △왕궁리5층석탑(김주) △얼씨구나 조오타, 자다가 오줌싸면 큰일인디(박성광) △아중호에 자란 나무가지, 아중호 우주인(박종관) △옛 군산세



전북대학교병원이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전북의 자연과 도시, 문화유산이 지닌 아름다움을 소개하기 위해 ‘전북의 비경’을 사진전을 열고 있다.

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사진전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전하는 문화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중기중앙회, 새해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

2월 말 까지 가입 시 쿠폰 증정

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로 '26년 1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5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새해를 맞아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혜택 증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력체계 강화

전북도는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완주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새마을금고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금융 협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공동주택 건축 시 지역건설산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AI 도입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 개발…새학기 개학 이전 학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모델 개발은 체육활동 시간이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 일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 확인됐다.

사고 장소는 강당·체육관과 운동장이, 사고 병명은 골절과 염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월별·시간대별 사고 사례는 물론이고 학교급별·활동유형별·기상조건별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AI 예측 모델은 과거 사고를 단순히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유형과 교육환경에 따라 사고 위험도를 예측해 '학교안전 예보' 형태로 학교에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북교육청은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사고 유형 또한 복합화되고 있어 AI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안전사고 발생 예측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해 기존의 안전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계획이다.

전북교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조사

한 자료를 보면 사고는 5월과 11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체육시간에 28%가 발생하는 등 시간대별·활동별 뚜렷한 패턴

이 모델은 안전교육 자료, 지도 문구, 체크리스트 등과 연계해 교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학교안전사고 예측 모델은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AI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교사와 학교가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 안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겨울방학 학습 공백은 최소화, 학습 역량은 강화"

전북교육청, 학습 수준 따른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부터 중위권 학생까지 아우르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방학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강화 △중위권 학생의 학습 역량 제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더 많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133개 초등학교에서 총 654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과보총 중심의 학습지원이 이루어지며, 다음 학년 학습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10개교를 대상으로 약 20일간, 총 13회에 걸쳐 학습코칭 캠프를 운영하며 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1:1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110명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한다.

완주는 약 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난도란 학습 상담'과 '학습진로캠프'



를 운영해 학습 보충과 진로학습 상담을 병행 지원한다.

전안과 무주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와 학력지원센터가 협력해 1:1 교과 보충 수업을 장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 지도 및 문해력 향상 방법 연수를 총 3회에 걸쳐 운영하는 등 가정과 연계한 학습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21일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12개분야총 15억원 내외 지원

의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교육정보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교육청은 사전심의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은 보조금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보조금사업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은 예산과제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적정하고 필요한 보조사업이 선정돼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적정한 규모로 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 미래 인재 양성 첫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8일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개소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최종 선발된 고창 관내 중학교 2~3학년 27명과 학부모, 고창교육지원청 및 EBS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

교육 혁신의 힘찬 출발을 축하한다.

고창 창의예술미래공간(고창읍 보릿골로 35) 3층에 자리잡은 '고창-EBS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고창교육지원청과 EBS가 협력해 설립했다.

센터 1기 학생으로 선발된 27명은 앞

으로 8개월간 EBS의 우수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와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AI 코스웨어), 전문 학습 코디네이터의 1:1 밀착 관리를 받게 된다.

학습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의 학습 계획 수립, 진도 관리, 학습 습관 형성, 진로 상담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진정한 자기주도적 학습 자료로 성장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숙경 교육장은 "앞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는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EBS와 함께 최선을 다하게

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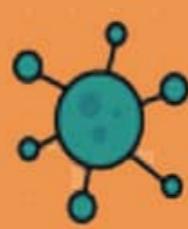
전북현대는 조위제가 기존 베테랑 수비진과 호흡을 맞춰 팀의 안정감을 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 수비의 핵심축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게 된 조위제는 "K리그를 상징하는 전북현대에 합류하게 돼 가슴이 벅차다. 전주성에서 팬들의 함성을 들으며 뛰는 날을 꿈꿔왔다"

며 "팀의 우승을 위해 헌신하고, 팬들에게 믿음을 주는 수비수가 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장정철 기자

겨울철 독감 예방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때 기침 예절 실천

기침과 열이 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자주 환기하기

독감 예방 접종 맞기

독감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기

정읍시 '2026년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신청자 모집

정읍시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발굴에 나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는 최대 5억원의 창업 자금을 1.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를 발굴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미만인 자로,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또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고도화에 따라 구축된 '농업e지(nongueup.go.kr)' 누리집을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읍 농업을 이끌어갈 열정 있는 예비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청년농업인, 지역 아동 위한 친환경 무농약쌀 100포 기탁

익산시 과수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나눔을 펼쳤다.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진용)는 7일 익산시 용안면에 위치한 은혜마을 맑은집을 찾아 친환경 무농약 쌀 10kg 100포(42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남궁진업 이사장을 비롯해 김진용 청년 위원장 등 청년위원회 관계자 7명이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함께했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업 현장과 지역사회를 있는 다양한 공의 활동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농업 가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용 청년위원장은 "농업 현장에서 흘린 땀의 가치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회원들의 뜻이 모여 이번 후원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농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영등2동, 이웃과 이웃 있는 돌봄 공동체 가동

익산시 영등2동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웃 돌봄 활동이 올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영등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하명남·유방용)는 7일 영등2동 이웃애(愛)돌봄단의 올해 활동 시작을 알리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영등2동 이웃애(愛)돌봄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장과 부녀회원 등 주민 8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상·하반기 각각 4세대씩 연간 총 16세대의 독거노인과 1대1 결연을 맺어 맞춤형 돌봄 활동을 펼친다.

돌봄단은 결연 대상자 가정을 주 1회 정기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등을 파악해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대상자의 필요를 반영해 밀반찬과 생필품, 과일 등을 교차 지원하며 생활 부담을 덜고 영양 관리를 돋는다.

하명남 영등2동장은 "이웃애(愛)돌봄단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부분을 주민의 관심과 나눔으로 채우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2동을 만들기"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체류형 관광 경쟁력 키운다

군산문화관광재단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국비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4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2차년도 사업을 연속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관광 거점과 지역 협업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간 재단은 2025년 1차년도 사업을 통해 관광 거점 공간 조성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관광콘텐츠 시범 운영 △지역 창작자·상권·관광 주체 협업 기반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여행자 쉼터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군산항1981' 운영과 지역 창작자·상권과 협력한 원데이클래스,



군산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루프탑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는 방문객 유입과 체류 시간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올해, 관광 서비스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관광 거점 공간 운영 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및 지역 협업 프로그램 본격화 등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방문 동기를 강화하고,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는 체류재방문 중심의 관광 구조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연속 선정은 지난해 사업 성과와 지역 주도의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만들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까지 넓힌 농식품 바우처 지원

12월까지 수시 신청 월 4~18만 7,000원 지급

익산시가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의 건강한 식탁을 뒷받침한다.

익산시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다. 특

히 올해부터 청년을 포함한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1인 가구 4만 원부터 10인 가구 18만 7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바우처는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돼 식생활 부담을 덜어준다.

지난해 바우처 이용자들은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하면 된다. 사용 가능 매장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는 시민들이 신선하고 균형 잡힌 농식품을 섭취해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돋는 제도"라며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취약계층 지원 위한 나눔 시민참여 확산 기대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정읍시는 7일 이학수 시장이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202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을 진행하

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1차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김홍식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회비증을 수여했다.

적십자 회비는 재난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금이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2026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을 진행하

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1차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사업 본격 시행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 청년 사회진입 지원

군산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회진입을 돋기 위해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일부터 신청모집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을 확대·개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기존처럼 18~39세 해당 청년이 군산에 있는 사업장 면접을 받을 때는 주소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

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산에 주소를 둔 청년의 경우 타 지역 사업장 면접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면접에 필요한 정장·셔츠·블라우스, 구두 등의 코디 물품을 1회당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하며, 1인당 연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모의 면접이나 대학(원) 진학 면접, 취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면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산시 청년풀 누리집을 통

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면접 일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26년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풀 누리집 또는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청년 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장학숙, 2026년도 입사생 98명 모집

내달 3일까지 신청

에 해당한다. 2순위는 통학이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교 재학생이나 재수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입사생 선발은 학업 성적과 생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신규 입사생의 경우 학업성적 50점과 생활정도 50점을 합산하며, 국가유공자 자녀나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족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재입사생은 학업성적과 생활태도, 생활 정도 등을 평가해 선발하며, 만약 재입사생 모집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입사생 중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입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신규 입사생 중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세계 각국 기념물, 익산글로벌문화관에 등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팀 그림·전통·의류 등 32점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념물이 포함됐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팀은 국제교류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세계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념물을 익산글로벌문화관에 전달했다.

익산시는 7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협력팀이 국제교류 과정에서 수집한 세계 각국의 기념물 32점을 익산글로벌문화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물품은 봉골, 페루, 이집트, 팔레스타인, 우간다 등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적 특징을 담은 자료들이 있다. 그림과 액자, 전통 의류, 생활 소품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군산시가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말 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 주민이 해당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신청을 검색해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증빙해 접수하면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 후 신청이 완료된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청년 재도약 돋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추진

정읍시는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돋는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

.

.

.

.

.

.

부안군, 1군민 1후원계좌 캠페인 '성과'

전체 후원 모금액 전년 대비 약 20% ↑ 기부문화 확산 실현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은 2025년에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범군민 후원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참여한 흥보 릴레이와 현장 캠페인을 통해 1만원의 기적 정기후원계좌 개설을 적극 홍보 한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900여명의 군민이 정기후원에 새롭게 동참했다.

일시 기탁을 포함한 전체 후원 모금 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전년 7억 6000만원 대비 약 20% 증가했다.

재단에는 공직자와 농업인 단체, 의용소방대, 소상공인, 지역 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켜온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러한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보여 줬다.

특히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다시 후원자로 참여하는 선순환 사례는 재단 장학사업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2017년 대학 1학년 등록금 지원을 시작으로 장학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대학교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

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매년 약 2200명의 학생에게 2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는 100만원의 다자녀 장학금을 추가 지원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장학제도도 운영하는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이후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반값등록금 완성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역 인재 육성의 중심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겨울방학 대학생일자리사업 시행

28명 선발…취업경쟁력 강화

고창군이 대학생들에게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학비마련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겨울방학 대학생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일자리사업은 군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1년에 2번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고창군은 2023년도부터 취약계층의 비율을 30%로 정해 더욱 다양 한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참여한 대학생들은 실제 행정 현장을 경험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근무 부서에서도 업무 지원 효과와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에 대해 만족을 나타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총 31명이 접수했고 1차 서류 선발, 2차 해당 사회복지시설 면접으로 총 28명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했다. 최종 선발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18개소에 1월 30일까지 총 4주간 근무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는 것과 동시에 고창을 바로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근무기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박주상 영주수산대표,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최근 진서면에서 수산업체 영주수산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상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주상 대표는 지역 수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며 평소에도 장학금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부 역시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바람을 담아 자발적으로 기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주상 대표는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오며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며 "고향사랑기부가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수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오신 박주상 대표의 기부는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분의 참여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성실히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한다"

정성주 김제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김제시가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는 격언처럼, 거센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김제의 새로운 미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시정 슬로건을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정하고 2026년 혼신의 여정을 이어 나갈 8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역점시책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협력 넘치는 '민생경제도시' △오늘의 도전으로 내일을 여는 '신산업육성도시' △첨단으로 일구운 농생명의 새로운 지평 '스마트농업도시' △미래의 물결이 이끄는 기회의 땅 새만금, '해양항만도시' △365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심케어도시' △모두가 더불어, 축출력 누리는 '교육복지도시' △김제만의 특별함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선하는 '시민중심도시'다.

정 시장은 "무엇보다 눈부신 수치가 김제의 저력을 증명한다"면서 "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국가예산 1조 원 시대는 2026년까지 시 최초 4년 연속 돌파라는



7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시정 슬로건을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로 정하고, '8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다.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인구 또한 2024년 대비 1,041명이 증가해 민선 최초 인구 증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지평했다.

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입지 강화와 경제기반 디지털로 가시적인 성과가 난 것으로 보고 2026년은 변화와 성과를 동력 삼아 김제의 미래를 완성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 시장은 "지금의 김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며, 시민의 목소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다"면서 "어떠한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초기

일관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하루 정성과 열정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어 "단번에 날아올라 하늘 높은 곳까지 이룬다는 일비충천(一飛沖天)의 자세로 지평선처럼 넓게 보고 새만금처럼 담대하게 비상하겠다"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응비하는 김제를 위해 필요한 일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엠즈씨드(주), 지역 상생 협력

전국 146개 폴바셋 매장에 고창 농산물 디저트 런칭

고창군이 7일 군청에서 엠즈씨드(주) (대표 권의범)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고창군과 엠즈씨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 땅콩, 복분자 등을 활용해 디저트 메뉴를 개발한다.

이후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폴 바셋(Paul

Bassett)'의 전국 146개 매장과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엠즈씨드(주)는 매일홀딩스(매일유업 지주사)의 자회사로, 카페 폴바셋과 돼지고기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식당 상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고창 선운사에 '폴바셋 고창선운 사집'을 오픈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고창군과 엠즈씨드(주)는 △고창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 및 원물 구매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심덕선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역·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공동마케팅 △기타 지역 상생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폴바셋에서는 고창 땅콩 카페雾霾, 고창 고구마 라떼, 고창 복분자 에이드, 고창 고구마 치즈 케이크 등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심덕선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과 지역·기업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특히 고창군 복분자는 엘라그산,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및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성분이 풍부한 지역 특화 농산물이다. 이번 연구는 복분자 연구의 방향을 여성 건강 영역으로 넓히는 계기가 됐다.

연구원에서 수행한 전임상 연구 결과, 다낭성난소증후군 동물모델에서 복분자 투여군은 체중 증가가 전반적으로 억제되고, 일부 추출물 투여에서는 난소 비대가 유의적으로

/부안=신상수 기자

참프레, 부안군에 장학금 2천만원 기탁

지속적 나눔 실천 이어와 누적 기부금 1억 5천만원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은 (주)참프레(대표 김재윤)가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참프레가 재단에 기부한 장학금 누적액은 총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참프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꾸준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윤 대표는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응원하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

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복분자' 여성 건강 가능성 확인

고창식품산업研, 과학적 규명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여성 난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식호르몬 불균형이 복분자 투여 후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대표적인 병리적 특징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복분자의 수확 시기(완숙·미숙)와 충출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가 나타나, 향후 복분자의 기능성 원료 표준화와 품질 관리, 제품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고창군과 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복분자를 여성 생식·내분비 건강 중심의 기능성 농산물로 육성하고, 향후 기능성 식품 개발과 기능성 인증 연계,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검산동, 2026년 노인 일자리 시작·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7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34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기본 안전수칙, 활동 시 유의사항,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송영애 검산동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어르신께서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1개월간 관내 환경 정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장수군,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동계 회원대회 성료

장수군은 '2026년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동계 회원대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동계 회원대회는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장수지부가 주최하고 장수사과원예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전국 33개 지부 사과 농업인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 교류를 겸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전국 단위 사과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최신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일본식 2축·다축 고밀식 재배기술 디세형 방주형 수형 관리 △2026년 병해충 방제 전략 등 고품질·다수화 실현을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이 행해졌다.

특히 일본 아오모리사과협회 명장 나리타 츠카요시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진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6년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돼 11개 읍·면 전 지역에서 운영되며,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경찰서와 야생동물관리협회가 합동으로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지원,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진안군은 지난해에도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550여 마리, 고라니 2,600여 마리를 포획하며 농작물 피해 경감과 ASF 확산 방지에 기여해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민원실 친절 교육 실시 공감·소통 역량 강화

장수군은 지난 6일 민원실에서 민원 안내에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친절 교육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친절한 언어 사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민원 사례를 공유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응대 요령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친절 교육을 계기로 민원 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전반을 점검하며, 군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공유했다.

민원 현장에서의 작은 변화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수군은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 환경 개선과 직원 대상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10억 돌파

25년 12월 기준 모금 누적액
총 13억 8천여만원 역대 최고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0억 원 첫 돌파 기록을 세웠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액은 총 13억 8천여만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모금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93% 이상 늘어나는 등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기부 참여 분위기도 크게 확산돼 참여 건수는 전년 대비 5,487건에서 12,194건으로 인원수도 5,328명에서 11,853명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성과는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과 기부자 만족도를 고려한 담론품 확대 등 활성화 노력이 크



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비롯해 울산에서 개최된 제3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7차례 홍보전을

펼쳤다.

이를 통해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고, 무주군 대표 특산물과 관광상품 등으로 구성된 담론품을 소개하며 기부 동참을 유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강영구 관광치즈과장 대통령 표창

2025년 정부 우수공무원 선별
사계절 축제 성공 견인



1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했으며, 체류형 복합문화공간과 체험·휴양·놀이·숙박이 결합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총괄 및 실행 단계 관리 역할을 맡아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 계절별 축제를 종합 기획·운영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임실=한병열 기자

강 과장은 지난 1992년 6월 공직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33년간 다양한 지방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 의식으로 군정 발전에 헌신해 왔다.

지난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을 총괄해 총

13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유치했으며, 체류형 복합문화공간과 체험·휴양·놀이·숙박이 결합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 총괄 및 실행 단계 관리 역할을 맡아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임실N치즈 브랜드를 1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이끌며 국내 최고 치즈 브랜드로 자리매김시켰고, 임실치즈&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베이글칩, 증류주 '도화당' 등 신제품 개발과 판촉 활동을 강화해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썼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2월말 첫 지급 예정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장수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민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

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

하다. 기본소득은 조폐공사 'chak' 시스템을 활용한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된다.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군은 이달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에 사용처 제한 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을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5 임실 방문의 해' 918만명 찾아..관광 역사 새 지평

7년간 도내 방문객 증가율 1위

임실군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지난 12년간 약 15% 차게 추진해 온 '천만관광 임실시대'가 지난해 '2025 임실 방문의 해' 성과를 계기로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918만 3,132명으로 최종 접수가 됐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8년 498만명에서 무려 84.2%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 7년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도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지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민군은 지난 12년간 일관되고, 똑심

있게 추진해 온 섬진강 브네상스 실현을 기반으로 한 군정 정책 △ 지난 2022년 개통된 옥정호 봉어섬 출렁다리 관광 급증 등 전국적 대박 관광지 부상 △ 옥정호 벚꽃축제와 임실N페스타, 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산타축제 등 사계절 축제의 성공 △ 소수의 관광지 등 반려동물 관광산업 추진 등을 풀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6년 5월, 군 최초로 개최하는 '장미꽃과 함께하는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해 사계절 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해 연간 방문객 천만명을 넘어 매년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남성 난임 치료비 지원..새롭게 시행

균형 있는 난임 지원 체계 구축

지원 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복적 혼인 상태이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남성 난임(무자증)을 진단받고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남성이 대상에 해당된다.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행한다.

이번 사업은 난임을 부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 중심으로 집중됐던 난임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남성 난임에 대한 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부가 함께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2026년도 분야별 주요 업무 계획 공유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 박차

정책 확충과 군민 기본권 보장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구천동 33경 생태 탐방로, △천환경 산악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 확충과 △무주산골영화제, △무주반딧불축제, △야간관광도시 진흥 사업을 포함하는 관광콘텐츠 육성 등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스포츠 중심도시 무주로의 도약, △국가 교통망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체계 강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소통하며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에 더욱 속도를 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은 7일 군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과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안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7일 군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교육·문화 체험을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해 올해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채명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본격 추진

무주군이 '소득작목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p



진안군 용답면 주민자치회,
‘마을복지’ 성금 기부

진안군 용답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철)는 지난 6일 용답면 마을복지에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기탁은 용답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모금한 성금 935,000원으로 진행됐다.

용답면은 이번 성금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해 마을복지 사업을 거점으로 용답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의 특화사업과 나눔 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을복지 사업은 용답면 지사협의 복지허브 사업으로 정기 및 일시 후원자 30여명이 함께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저소득층, 가정 밑반찬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계면,
익명 기부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장계면은 지난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기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현금이 담긴 봉투 형태로 전달됐으며, 어려운 이웃을 돋고 싶다는 뜻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는 평소에도 주변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등 말보다 실천으로 나눔의 가치를 이어온 인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변의 시선이나 감사 인사를 사양하고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는 기부자의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하며, 이웃 사랑 문화 확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따뜻한 실천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을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반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기부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되는 한 나눔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주)인익스, 완주군에 백미 10kg 100포 기탁

“이웃들에게도움되고싶어”

(주)인익스(대표이사 문종배)가 지난 6일 완주군에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주)인익스는 2023년 12월 처음 백미를 기탁한 이후 2025년 1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주)인익스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매년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인익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받은 백미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전달해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종택 사회복지과장은 “민간 기업의 꾸준한 나눔 문화가 지역 사회 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더욱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관내 취약 계층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인익스(대표이사 문종배)가 지난 6일 완주군에 백미 10kg 100포를 전달했다



(주)세인종합건설 최태용 대표,
순창군에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7일 (주)세인종합건설 최태용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 전문 건설기업인 (주)세인종합건설을 운영중인 최태용 대표는 전주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등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태용 대표는 “고향 순창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돋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전북 경제계 거목’故 이선흥 회장 별세

전주상공회의소

제22,23대 회장 역임 등

전북지역 경제계 별 이선흥 합동건설(주) 회장이 향년 79세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故 이 회장은 경제계에서 오랜 기간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북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고인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상공

회의 제22,2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3,24대 회장, 대한적십자사 제33대 전북지사장을 역임한 전북경제계의 거목이다.

故 이 회장은 특히 2017년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당시 전북지역 상공인의 전당인 상의회관 건물을 완공했다.

故 이 회장은 “지역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인프라가 필수”라며 상의회관 건물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했다.

이에 따라 상의회관을 찾으면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자금지원에 서부터 상담, 교육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게 했다.

고인의 업적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상생 협력을 위한

허브로서 건물 완공이 경제계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경제계 각계는 故 이선흥 회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故 이선흥 회장 빈소는 전북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운구는 2026.01.09. 전주승화원을 떠나 남원산동면 선영에 잠든다.

/김영태 기자



임실군 오수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정준)가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실 오수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 300만원 성금 기탁

임실군 오수면 이장협의회(회장 이정준)가 오수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

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고 7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한 해를 마무

리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장협

의회가 여름철 환경정비 활동 일

행으로 진행한 풀베기 사업 수익

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

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오수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

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특

히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계

획이다.

이정준 회장은 “지역 내 취약계

층이 보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연

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보

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시 수송동(동장 곽은하)은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미아)가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 수송동 주민자치위원회, 성금 350만원 기탁

군산시 수송동(동장 곽은하)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

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며, 특

히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계

획이다.

이번 성금은 주민자치위원회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

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

용될 예정이다.

이미아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 있지만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

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

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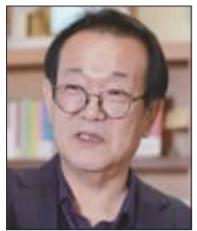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며 “기탁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심으로 감</

〈一事一言〉



내란세력은 누구이며 어디까지인가(1)

전우용
역사학자

1945년 해방을 맞았을 때, 민주독립국가 건설이 민족의 지상과 제라는 의견에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극소수만이 시대착오적인 왕정복고를 꿈꿨을 뿐이다. 새 국가 건설과정에서 '친일민족반역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

일제에 부역하여 동족을 짓밟은 민족반역자들을 처단, 처벌하지 않고서는 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전제인 '민족정기(民族正氣)'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당대의 보편적 대의(大義)였다. 그런데 '민족반역자'는 누구이며 '민족반역행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국민학교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랑 놀다가 '우리말' 썼다는 이유로 담임 선생에게 끌려가 두 뺨이 터지도록 후회하게 맞았다. 해방이 뭔지는 잘 몰랐으나 그 선생 안 보게 됐다는 것만으로 기뻤다. 그러나 개학 후 학교에 가니 그 선생이 그대로 있었다." 꽤 오래 전 영화감독 임권택이 모 잠자와 인터뷰하면서 술회한 '해방의 기억'이다. 당대의 문자 보급률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민족반역자'는 조선귀족이나 종족부 책임관, 저명한 문필가나 예술가들이 아니라 막단 순사, 면서기, 구장(區長), 경방단장(警防團長), 학교 교사, 교회 목사 등 그저 '유지(有志) 행세하는 이웃'들

이었다. 징용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집안에 들어와 놋그릇 나부랭이를 빼앗으며, 우리말 쓰다가 발각된 아이들을 모질게 때리고, 일본 신도의식 시간에 일부러 지각했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발한 자들이 '민족반역자의 실례였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갱생의 시간'을 주는 게 '정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실현 가능한 영역 밖에 있었다. 무엇보다도 '민족반역자'로 몰린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친척·친지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한 일이 어떻게 '민족반역범죄'가 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민족반역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만큼, '민주독립국가' 건설의 주체는 줄어들고 적결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47년 3월 13일,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은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초안을 상정했다. 이 초안은 조선총독부의 말단 행정관리로 민족반역자로 규정했으나, 입법의원 중에도 이에 해당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해당자'들은 따로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조선총독부 책임관 이상으로 크게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으로서 책임관 직위에 오른 자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둘러싼 입법의원 내의 논란은 7월 2일의 '재수정안'으로 귀결되었다. 재수정안은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주

임관(현재의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 판임관 이상(전원)의 군인과 군속, 고등계(독립운동가 체포 심문 관련 업무 담당)에 재직한 경찰로 한정했다. 그러나 총독부 조선인 관리들에게 '현직 유지'를 지시했던 미군정청은 이 특별조례법률을 인준하지 않았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기했다. 8월 5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 특별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미군정기의 특별조례법률에 기초한 법안을 만들어 정부 수립 다음 날인 8월 16일 국회에 상정했다.

특별법은 ① 일제로부터 직위를 받거나 세습한 자, ②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③ 책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④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⑤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했던 자, ⑥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⑦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⑧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자한 자, ⑨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자한 자, ⑩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본부의 수뇌간

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⑪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 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⑫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들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했다.

이들 중 ①~③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④부터는 정성적 판단이 필요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로 조사위원회와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로 구성된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민족반역자의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절대다수의 구 총독부 하급 관리들, 특히 경찰들은 과거 행적을 반성하는 쪽보다는 민족반역자의 정체성을 내면화하는 쪽을 택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족반역자로 처벌받을 경찰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적 정의감'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았던 경찰들에 반민특위 와해는 '생존의 문제'였다.

결국 '대중적 정의감'은 단 1%도 충족되지 못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시

폭설 / 류근

그대 떠난 길 지워지라고
눈이 내린다
그대 돌아올 길 아주 지워져 버리라고
온밤 내 욕설처럼 눈이 내린다
온 길도 간 길도 없이
깊은 눈밭 속으로 지워진 사람
떠돌다 온 벌자국마다 하얗게 피가 맺혀서

이제는 기억조차 먼 빛으로 밟이 묶인다
내게로 오는 모든 길이 문을 닫는다
귀를 막으면 종소리 같은
결별의 예감 한 일
살아서 바라보지 못할 푸른 눈시울
살아서 지은 무덤 위에
내 이름 위에

아니 아니 아프게 눈이 내린다
참았던 눈우침처럼 눈이 내린다
그대 떠난 길 지워지라고
눈이 내린다
그대 돌아올 길 아주 지워져버리라고
사나흘 눈 감고 젖은 눈이 내린다

시인 악력 : 1966년 문경 출생.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를 수료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김광석에 의해 불

렸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사설

반도체 균형 배치, 전북 결집이 만들 시험대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결집된 행동에 나섰다. 안호영·윤준병 두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총력 대응을 선언한 것이다.

무려 3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수도권에만 집중시키는 기존 산업 구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전북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서선다. 수도권과 광역·용수 부족, 지역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전환 요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 기구 설치는 전북을 '가장 준비된 이전 후보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전북은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RE100 기반의 친환경 산업 입지로 손색이 없다.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는 전력 수급 문제에서 전북은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다.

여기에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 부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 여건까지 고려하면 삼성전자 이전 논의에서 전북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몇 개의 램은 이전되더라도 전북 경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이영춘가옥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근대가옥
-지정일 - 2003년 10월 31일
-시대 - 1920년경
-소재지 - 군산시 동개정길 7
(개정동)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충청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구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제주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하루, 전북타임스가 함께 시작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번호 -063)282-9601 팩스 063)282-9604 **JBT** 전북타임스

2026

의산 대전환의 해 도시를 바꾸는 AI 시동

의산시가 2026년을 '미래도시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AI를 중심에 둔 3대 산업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정현율 의산시장은 7일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는 의산이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펼치며 미래 100년의 토대를 다지는 결정적인 해"라며 농업·식품·바이오 산업에 AI를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왔다"며 "2026년은 누적된 성과 위에 미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쌓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주)



◆ 지난해 성과 기반, 미래 전략에 속도
2025년 의산시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도시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랜 논의에 머물렀던 과제들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며 변화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다.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입점 확정, 지역사랑상품권 '의산 디아로움'의 실질적 경제효과, 민간특례공원 프로젝트의 성공, 청년 인구 순유입 1위 달성 등은 의산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을 '3+AI 전략' 중심의 대전환의 해로 삼아, 산업 구조 혁신과 시민 삶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 인공지능(AI), 산업과 일상을 함께 바꾼다

의산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AI 디지털혁신센터·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무인·지능형 공정을 실증하고, 고속련자의 기술을 AI가 학습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AI 한글화 전달 교육센터를 구축해 시민 대상 기초 교육부터 강화학습 기반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갖춘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기반 AI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시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스마트 도시' 전 환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관제센터와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자율주행 버스를 연내 운행에 도입시킬 예정이다.

또한 구도심에는 XR 기반 디지털 관광거점을 조성해 문화·관광 영역까지 기술을 확장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생활 안전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안전망도 강화 한다.

또한 구도심에는 XR 기반 디지털 관광거점을 조성해 문화·관광 영역까지 기술을 확장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생활 안전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안전망도 강화 한다.

◆ 농업의 한계, AI로 넘는다
또한 시는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극대화 하고자 농업에 AI를 본격 도입 한다.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농기자재 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기반 정밀농업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등을 통해 무인·자율 농작업 시스템을 실현해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의산은 푸드테크 기반 식품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식품 도시 도약을 노린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산업을 기술·문화·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식단, 식품 안전관리, 대체식품 개발 등을 시민 식탁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계획 중인 국립 의산식품박물관과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관람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식품도시 의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바이오 산업 중심 도시…레드·그린 바이오 다잡는다

의산은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바이오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기업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7일 의산시 신년 브리핑 실시 '3+AI' 전략 산업·일상 함께 혁신 농업·식품·바이오 강점 분야에 'AI 성장 엔진' 더해 미래 기틀

레드바이오 성장에 속도를 낸다. 5

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의산은 국내 최대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인공혈액, 인공장기 등 다양한 동물 바이오 기술 개발이 이뤄지며, 의산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의 선도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분야별 전략 추진으로 도시 균형 발전

시는 '3+AI 전략' 외에도 △경제·SOC

△역사·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친환경·생태복원 △안전·행정 등 5

대 분야의 핵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청년시정·통합일자리센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는 백제 유적 정비와 문화형 축제를 강화해 천

만 관광도시 기반을 다진다.

보건·복지 분야는 모아복합센터, 어린이 전문병원, 노인인력개발교육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지원과 돌봄체계를 고도화해 복지 안전망을 좀

촘하게 구축한다.

환경 분야는 도시숲과 생태축 복원,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폐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 행정 분야는 재난안전 산업진흥원 설립, 주민참여예산, 친절 행정을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한다.

정현율 시장은 "도시의 미래는 행정 뿐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시민, 지역을 지켜온 공동체의 신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과 함께 완성된다"며 "올해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미래를 실천과 성과로 보여내겠다"고 책임행정을 약속했다.

/의산=최준호 기자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丙午年

金石爲開

[금석위개] 강한의지와 정성으로
어떤일이든 해낼수있음을 비유하는 말

장수군

2026

